



효원

제 18 회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

- ▶ 언제/어디서 : 2016년 10월 8일(토) 오전 10시 ~ 18시 / 부산대학교 인문관
- ▶ 주최 / 주관 : 부산대학교 / 국어국문학과
- ▶ 입 상 자 : 부상 및 문학특기자 지원 자격 부여(전국 각 대학)
- ▶ 초 청 강 연 : 성석제 (시인 · 소설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외 다수)



참가신청 및 문의

전 화 : 051)510-1507

팩 스 : 051)582-4823

홈페이지 : <http://essay.pusan.ac.kr>

이 메 일 : pkorean@pusan.ac.kr

18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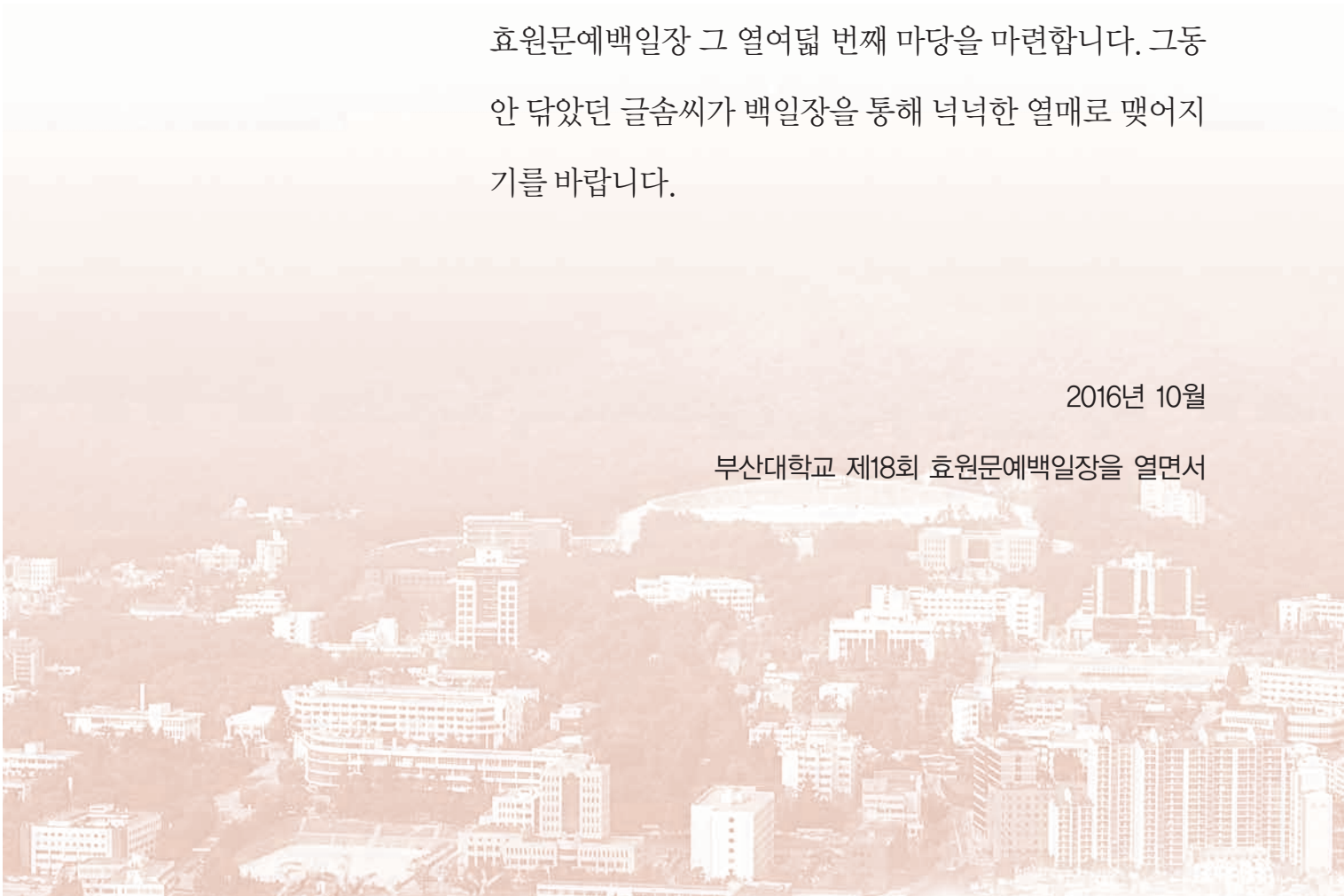
효원문예백일장

폭염과 폭우가 몰아친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햇살을 닮은 고교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풍성하게 익어 가길 기원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한국 문학을 튼튼하게 키워 줄 꿈나무를 찾아 기르고자,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 그 열여덟 번째 마당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닦았던 글솜씨가 백일장을 통해 넉넉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부산대학교 제18회 효원문예백일장을 열면서



제18회 효원문예백일장

부산대학교에서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을 발굴하고, 창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제18회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을 다음과 같이 마련합니다. 본 백일장은 제1회(95개교 1,111명 참가), 제2회(139개교 1,753명 참가), 제3회(139개교 1,679명 참가), 제4회(135개교 1,085명 참가), 제5회(170개교 1,038명 참가), 제6회(143개교 1,110명 참가), 제7회(99개교 720명 참가), 제8회(135개교 857명 참가), 제9회(183개교 776명 참가), 제10회(163개교 722명 참가), 제11회(216개교 1,018명 참가), 제12회(186개교 1,018명 참가), 제13회(209개교 936명 참가), 14회(193개교 649명 참가), 15회(97개교 302명 참가), 제16회(170개교 460명 참가), 제17회(123개교 441명 참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정착하였습니다. 본 대회의 입상자는 전국 4년제 대학의 문학특기자 모집에 응시 가능합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0:00 ~ 18:00

2. 장 소

1)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 지정 강의실(인문관)

10월 8일 10:00부터 인문관 입구에서 접수 확인을 하고 지정 강의실로 입실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2) 원고 작성 장소 : 오리엔테이션 장소와 동일

3. 참가신청

1) 인터넷 신청

효원문예백일장 홈페이지(<http://essay.pusan.ac.kr>)에 접속하여 접수

2) 우편 또는 전송(Fax) 신청 : 소정양식(첨부 자료) 활용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대교수연구동 107호)

팩스 : 051-582-4823

3) 접수 기간 : 9월 19일(월) ~ 9월 30일(금) 인터넷 신청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시고, 10월 7일(금) 14:00 이후 효원문예백일장 홈페이지 (<http://essay.pusan.ac.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현장 접수 불가

4. 행사 일정

참가 학생 등록	10:00~10:30	부문별 지정 장소(인문관)
오리엔테이션	10:30~11:00	부문별 지정 장소(인문관)
원 고 작 성	11:00~13:30	부문별 지정 장소(인문관)
점 심 시 간	13:30~14:30	금정회관
초청 강연 / 학과 홍보 및 친교 행사	14:30~17:00	10 · 16 기념관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17:00~18:00	10 · 16 기념관

5. 응모 분야

- 1) 운문부 : 시, 시조
- 2) 산문부 : 수필, 콩트(1,500자 이상)

6. 입상자 : 분야 관계없이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다수

※ 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입상자 특전 : 문학특기자 지원자격 부여(전국 각 대학)

8. 오는 방법

김 해 공 항

307번 좌석버스 → 동래 지하철역 하차 → 지하철(1호선) → 부산대역 하차
→ 순환버스를 타고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하차 → 인문관까지 도보 이동

기차(부산역)

지하철(1호선) → 부산대역 하차 → 순환버스를 타고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하차
→ 인문관까지 도보 이동

고속버스(노포동 터미널)

지하철(1호선) → 부산대역 하차 → 순환버스를 타고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하차
→ 인문관까지 도보 이동

9.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필기구

※ 원고 작성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실격 처리됨
(원고 작성 시는 휴대전화를 따로 수합할 예정임)

10. 문의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부산대학교 인문대교수연구동 107호, ☎ 051-510-1507, fax 051-582-4823)

11. 부대 행사

1) 초청 강연 및 친교 행사

초청 강연	친교 행사
◆ 시간 - 14:30~16:00 ◆ 장소 - 10·16 기념관 ◆ 강사 - 성석제 (시인·소설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외 다수)	◆ 시간 - 16:00~17:00 ◆ 장소 - 10·16 기념관 ◆ 내용 - 학과 홍보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국어국문학과 재학생과의 한마당

2) 역대 대회 입상자 및 귀성문학회 시화전 : 인문관 복도



※ 신청서를 접수한 학생은 10월 7일(금) 14:00 이후 부산대학교 효원문예백일장 홈페이지(<http://essay.pusan.ac.kr>)를 통해 반드시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함.

사막

김 미 나 (안양예술고등학교)

할아버지 귀는 사막을 걷는다

아무 소리도 살지 못하는 사막이다

할아버지는 제 귀에 사막이 펼쳐져 있다고 믿는다

사막의 계절을 접었다가 폼다가 하는 도마뱀 울음소리,
모래언덕 그늘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한낮,
빗줄기를 입으려다 다시 동여매고 지나가는 먹장구름 소리,
가끔은 목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가래 끓는 소리,

소리를 잃어가는 것은
사막을 홀로 걷는 일이라고 했다
사막을 걸으며 하는 일이란
햇볕을 차곡차곡 귀지처럼 쟁여
사막의 밤을 기다리는 일

사막의 밤 밑에는 맨발이 있었고
광활한 침묵만이 있었다
열두자리 성좌들도
빛의 사막을 다 걷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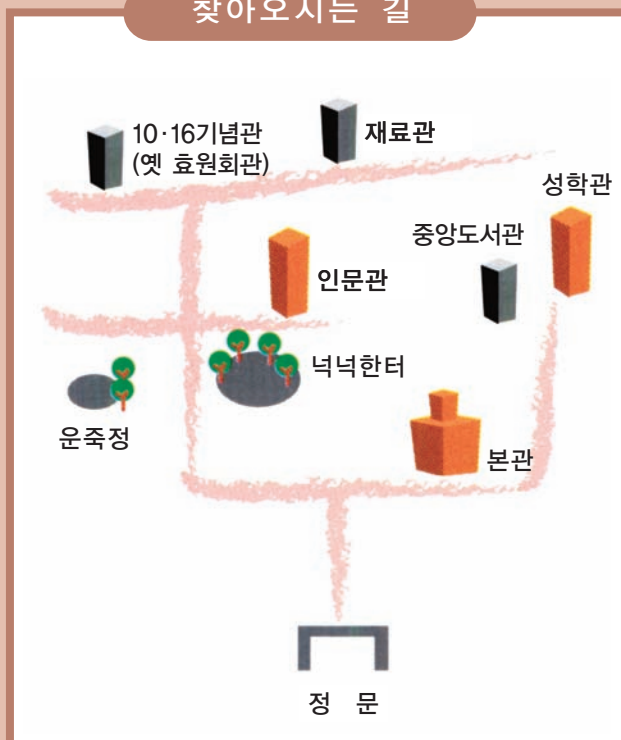
할아버지 귀에서 누런 모래알들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사막에 오로라가 깔릴 때
제일 먼저 선인장 꽃망울 옆에서
사막의 현기증을 맛보던 사막여우도
계절이 지날 때마다
소리를 접는다고 했다

꺾속에서 사막이 샌다고 말하는 할아버지
방문 열고 들어가고 없는데
소리를 찾고 싶은지, 금성 나침반만 올려두고
먼데서 사막의 밤이 오는 소리를 찾으려한다
나침반 바늘 허둥대는 소리 깊다





찾아오시는 길



문의

인 터 넷 : <http://essay.pusan.ac.kr>

전자우편 : pkorean@pusan.ac.kr

전 화 : 051) 510-1507

F A X : 051) 582-4823